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세상에 빛을, 이웃에게 사랑을”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본부장 이종호 이하 한진)는 환경·윤리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각 부서와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화재 및 범죄예방 활동,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범죄 예방용 안심등 설치,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불이행 소화기 보급,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맹학교 점자 위생용품 제작 지원, 호우 피해 복구 등 이웃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응답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어 ESG 경영 실천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이종호 본부장을 만났다.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사옥 전경.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획득을 위해 기존 ESG 경영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기관의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활동을 준비했다.

한전은 국내를 대표하는 대규모 기업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활동들이 ESG 각 분야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환경경영 분야에서는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윤리경영에서는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들의 꾸준한 노력을 정리하고 점검하여 심사에 참여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고령만족도 조사,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등

예산 축소 속에서도 이어지는 따뜻한 손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

효율 향상 사업, 에너지 절약에 유도하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 등도 심사 자료에 적극 반영했다.

이러한 사업과 제도의 초창기 목표를 되짚어 보고, 이를 심사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청주 서부소방서와 협력해 청주 전통시장 점포에 불이행 소화기를 보급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12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밖에 충북경찰청과 함께 청주와 진천 지역의 한전 전주를 활용해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등, LED 패널, 태양광 표식 등을 설치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겨울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굿네이버스와 함께한 청주맹학교 점자 위생용품 제작·지원,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각 사업소에서도 지자체 및 복지시설과 연계해 전기 후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 매년 300건 이상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현재 공사의 인력 구조상 사회공헌 활동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점이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으며, 본부와 각 사업소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최소 3~4가지 이상의 직무를 겸하고 있

어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력공급 업무가 바쁜 시기에는 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열정과 직원들의 봉사정신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잔여 업무로 야근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에 우선으로 참여하며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지연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며 사회공헌활동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더프렌드’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앞으로의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 및 구급 물품 후원,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아동 지원 활동, 노인·장애인 복지관 후원, 국가유공자 지원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 및 화재 예방 등 지역 내 사회안전망 구축 활동을 내년도 특화사업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사적으로 시행 중인 사랑의 에너지 나눔, 겨울철 의무 나눔, 지역아동센터 우수 봉사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기존 활동은 더욱 충실히 이어가면서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에도 도전하여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이 전기 절약에 동참한다면, 작은 실천을 통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충북도는 2024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식에서 정선용 행정부지사(가운데)와 우수기업 선정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식

충북도, 15곳 인증패 전달... 금리우대 등 혜택

충북도는 지난 6일 2024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도내 1년 이상 소재하고,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인 15개 기업이다. 해당기업은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0.5%),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2년) 등의 혜택을 받는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주식회사 유진테크시스템(대표 최순희), 낙원환경(대표 주광식), 코어그린(대표 김정환), 유성알미늄 진천공장(대표 신규원), 부농산업 (대표 손익중, 이현휘), 이로운식품 어묵공장(대표 정찬울), 좋은세

상 (대표 이오석), 화인프라텍 (대표 정연식), 유한회사 관동농화(대표 윤여모), 이삭식품(대표 박수웅), 에이치앤비레드랩(대표 정승조), 삼덕레미콘(대표 이상우), 일양(대표 신남근), 태거산업(대표 이영모), 국제식품 진천공장(대표 문병조)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일자리라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노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총력...내년 823억 투입

결혼·분유값 지원 및 난임 시술비 확대 등

충북도는 지난달 18일 2025년 저출생·인구위기 대응 사업에 올해 603억 원보다 220억원(36.5%) 증가한 823억 원을 투입하여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출산육아수당, 결혼 및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과 기존 사업에 청년 결혼 등의 지원에 나선다.

먼저 청년 결혼 지원을 위해 올해 제정된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에 따라 1200만원 이내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 100쌍에게 예식비용 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남대, 미동산수목원 등 도와 시·군의 공공시설은 예식장소로 제공하고, 소멸위험지역의 19세부터 49세의 신혼부부 490쌍에게 결혼지원금 200만 원을 따로 지원한다.

아울러, 임신·출산 지원은 더 확대한다. 여성 1인당 생애 25회였던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하였고, 45세 미만만 지원하는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전국 최초로 모바일 임신증명서를 발

급해 맞춤형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태교 여행 프로그램인 ‘맘(Mom)편한 태교여행’ 지원사업의 인원은 300명에서 최대 9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위치를 활용한 고위험 산모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30명에게 임신검사, 심리상담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대태아 출산 가정에 12개월 이하 영아 1명당 120만원의 조제분유값을 지원하며, 도내 모든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안전보험을 가입해 준다.

특히 지방소멸대응자금 23억원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정부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주맹학교 점자 위생용품 제작 지원.



겨울철 사랑에 김장나눔 행사.

‘사회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발송횟수: 주 3회(문자서비스)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신청기간: 상시접수



문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청주시 콜버스 월평균 3000명 이용

전면도입 1년... 호출형·고정노선형 병행, 경로당 호출벨 설치 편의 개선 등

청주시가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읍면 전역에 콜버스를 도입한 지 1년을 맞아 한달 평균 3000명이 이용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콜버스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이용자(호출형)를 보면 오송읍 5467명, 내수읍·북이면 4177명, 강내면 3546명, 오창읍 3312명, 옥산면 3262명, 가덕면·문의면 2333명, 현도면 2103명, 남이면 1777명, 미원면·낭성면 736명 순이다.

한 달 평균 2968명, 하루 평균 890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오송읍으로 하루 평균 141명이 타고

있다. 내수읍·북이면, 강내면, 오창읍, 옥산면 지역도 매일 100명 이상이 꾸준히 탑승하며 이용객이 증가 추세다. 콜버스 평균 대기시간도 20분 이내로 길지 않다.

청주시는 12개 읍·면 전역에 대해 전화로 호출하면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DRT) 대중교통 수단인 콜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0월 5일 오송읍에 대해 콜버스 4대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12월 9일 전면 도입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평일 50대, 주말·공휴일 41대가 달린다. 요금은 기존 500원에서 이달 14일부터 700원

으로 200원이 인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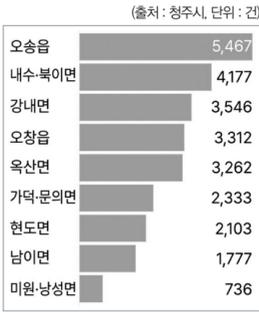
청주시는 콜버스를 호출하면 운행해주는 실시간 호출형과 고정노선형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대리 호출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중이고 지난 8월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 거점지역 등 400곳에 호출벨을 설치해 이용편의성을 높였다.

또 이용 수요와 이용패턴을 고려해 지난 7월 평일 운행대수를 늘렸고 지난 10월에는 강내면과 남이면에 2대를 증차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콜버스 이용자 1774명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 2024 청주시 콜버스 읍면별 월평균 이용자(호출형) 현황



67%가 긍정 평가했다. 만족 이유는 편리한 호출, 이동시간 감소, 저렴한 요금 등을 꼽았다. 특히 내수면·북이면은 만족도가 84%로 높게 나타났다.

진천군, 선제 복지정책 '생거진천' 구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복지망 강화

진천군은 지난 4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증가 전력으로 젊은 층의 유입을 끌어내면서 충북도내에서 청주시에 이어 가장 젊은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선제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살아서는 진천'이라는 생거진천을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흐름 속에 올해 10월 말 기준 진천군 노인인구(65세 이상)는 1만6602명으로 전체 인구 8만

6685명의 19.15%를 차지하며 노인인구 20% 이상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인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Aging in Jincheon'을 내세우며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추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있다.

현재까지 1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000명의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통합간호센터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돌봄 '우리동네거점돌봄센터',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사회적 농업을 통한 돌봄서비스 '생거진천 케어팜' 등 진천군만의 특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까지 추진하면서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행정 안에서 복지, 보건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편해 복지-보건 접단 인력을 구성했으며, 각 읍·

면마다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건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등 다분야 요구를 통합적으로 조사한 후 주 3~5회 읍·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지원회의를 개최, 개인별 맞춤형 통합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 19곳의 45종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함께 현장 전문요원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830명)을 가동 중이다.

그 결과 위기 상황에 있는 어르신 2728명을 발굴하고 2625명에 대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했다.

충주시,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경찰·소방 방범영상 공유... 시민 안전 향상

충주시는 지난 11일 경찰서와 소방서에 방범용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긴급 출동해 골든타임을 지키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을 제공하게 된다.

또 관제센터와 경찰청 수배차량 정보를 연계해 차량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수배차량 검색 지원서비스'를 경찰청이 사용하게 됐다.

시는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7월부터 4억원을 들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군부대를 상대로 훈련 지원과 각종 테러나 전시 상황에 대비한 CCTV 영상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시는 군·관·경 등 관계 기관 협업을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 안전 시스템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안전망 서비스가 '안전 충주'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도시 안전망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의 스마트 도시 안전망 개념도.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제천시, 장애인복지사업 '전국 최우수'

자립·서비스 등 높은 평가... 충청권 유일 3년 연속

제천시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과 서비스 지원, 복지 전달체계, 우수사례 등 4개 부문 14개 항목을 평가했다.

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 '복지다담'을 개설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자체 추진했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

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창규 시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차별 없는 제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

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이 부문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김창규 시장(왼쪽)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양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정서적 어려움 있는 군민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단양군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률,

서비스 제공기관·제공인력 등록 건수, 예산 집행률 등을 평가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마음건강돌봄, 자

살예방,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됐다.

단양군은 2024년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의 초빙, 걷기 행사, 힐링 음악회, 오은영 박사 초청 강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음성군, 수감될 뻔한 다문화·한부모가정 구출

국가기관·지자체 협력 문제해결... 성과 창출 모범

음성군이 지난 11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수감될 뻔한 다문화가정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벌금 미납으로 집행수배 중이던 국적 취득자 A씨가 음성경찰서 삼성파출소에 자진 출석해 현장에서 체포되며, 교정시설에 수감될 뻔한 사건이 있었다.

A씨가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임신중이라고 하여 임시 석방조치됐으나, 가족관계 등을 조회해 본 결과 법적 자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청(이하 충주지청)은 음성군에 사실관계를 조회해 A씨가 법적으로 자녀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한국으로 시집

을 와 한국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 출생신고 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충주지청 신세계 행정관은 즉시 음성군청 이혜지 주무관에게 협조를 구해 신속히 현장에 동행했고, 확인 결과 태어난 지 4개월 된 여자가이를 확인했다.

이후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벌금수배자였던 A씨가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인 점과 출생 1년 미만의 자녀 보육으로 교정시설 유치집행이 곤란한 점,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외적으로 미납 벌금을 6개월간 나누어 납부하도록 벌과금 분할 납부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충주지청 신 행정관과 음성군청이 주무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산형미집행자의

미출생영아에 대한 출생신고와 경제적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이 주무관의 도움으로 아이의 출생신고와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형집행정지 완료했다. 이후에도 이 주무관은 사회복지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동안 가정방문과 A씨와 아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 행정관은 "지자체에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가 주무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주무관은 "아동이 출생신고를 마치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리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정류 및 식용유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음료류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

생활용품류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기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은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보은군, 사업비 107억원 확보... 2028년 준공 목표

보은군이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에 뽑혀 국비 40억원 등 전체 사업비 10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비에서 이름을 딴 생활밀

착형(장애인형) 체육센터를 말한다.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전체 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해 보은읍 성주리 일원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보은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체 면적 1769㎡ 규모다.

지상 1층에 수중운동실과 체력단련실을 마련하고, 지상 2층에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운동처방실 등을 조성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겠다는 게 군의 생각이

다. 군은 앞으로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설계 공모에 나선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장애인들의 체육 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 군민의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보은군,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혜택 증가

산림휴양시설 숙박 이용료 감면 등

보은군은 지난 15일 내년부터 다자녀가정을 위한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다자녀

가정에 산림휴양시설 숙박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비수기 이용료는 50%, 성수기 이용료는 30% 할인된다.

또한, 종량제봉투도 월 120ℓ 한도 내에서 무료로 지급된다.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며,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다.

군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 다자녀가정은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수도요금 월 5㎡ 감면,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정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증평군,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선정

작은도서관 온마을 돌봄공간 조성사례 발표

증평군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맞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민간 등이 참여해 지역 특화형 늘봄학교 협력모델 추진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전국 46개 사례가 응모했으며 행안부와 교육부, 초등돌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류심사와 프리젠테이션 발표심사를 통해 최

종 18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에서 군청사와 작은도서관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증평만의 특색있는 행복돌봄나눔터 조성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행복돌봄놀이터 조성과 통합돌봄센터 조성 계획 등을 함께 발표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특히 과대학교로 늘봄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교육 현장의 애로를 행복돌봄나눔터를 통해 지원하고 함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재영 증평군수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께 협력한 점에서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1억원의 특별교부세도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이재영 군수는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돌봄 20분 도시 조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증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저소득층 안정적 일자리 제공 호평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증평군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해 힘써오고 자활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정책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와 유공자들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자활기금(기업) 활성화, 자활사업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군은 증평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증

대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자활기금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한 점이 주목받았다.

또 일하는 청·장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활과 자립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증평지역자활센터 박

영미 실장도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으며 자활분야의 전문성과 헌신을 인정받았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과 자활센터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저소득 주민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제4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아동이 주도하는 정책 참여...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

옥천군이 지난 8일 내년 1월 31일까지 8주간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4기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관련 정책을 의견 제시, 모니터링, 직접 사업 기획과 추진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출생한 옥천군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아동 및 학교 밖 아동 30명 내외로,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으로 구성된다.

선발된 위원들은 내년 3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신청은 주민복지과 방문·우편, 이메일(namuimo@korea.kr), 팩스(043-731-9966)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옥천군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도적 기구로, 제3기 위원회는 아동 관련 베스트 정책 선정 및 개선안 제시, 팝업놀이터 기획, 어린이날 모니터링, 아동학대 예방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제안 등 총 15회에 걸친 활동을 통해 아동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군 관계자는 "아동과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영동군,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 '호응'



영동군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 혜택 제공

영동군은 지난 6일 주민 법률문 제 해결을 위해 운영중인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추풍령면 서 시작된 법률상담실은 지역주민

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며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받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은 바쁜 생업, 경제적 어려움, 지리적여건 등으로 법률전문가

접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현직변호사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영동군은 지난 11월까지 매곡면, 상촌면, 학산면 등 총 10회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했다.

총 3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달 23일 황간면을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법률상담관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우성 박정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세광 명지성 변호사는 민사, 가사, 형사, 행정분야의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제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영동세무서와 연계해 종합적인 행정법률상담을 지원하며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괴산군,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 추진

고독사 위험군 159가구 대상... 주 2회 건강음료 배달

괴산군은 지난달 19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 '20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개정, 위험군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59가구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확인됐다.

군은 위험군으로 분류된 159가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주 2회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LED 전 등 교체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한 이불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괴산군, '저출생 위기 극복' 성금 모금에 앞장

군민 누구나 아이 낳고 살고 싶은 청정 괴산

괴산군은 지난 10일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 기부 릴레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북도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

회(회장 이민성)가 지난 6월 업무 협약한 사업이다.

모금된 성금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저출생·인구 위기 관련 사업뿐 아니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 모금 계좌(농협 301-0201-2259-61/충북공동모금회)로 입금하거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chungbuk.chest.or.kr)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송인현 군수는 "앞으로도 청정 괴산을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노인일자리 근로 희망 사유 '생계비 마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도별 특성 분석 보고서 발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1일 '노인일자리사업 수요 추정 및 시도별 특성 분석'을 주제로 한 'KORDI ISSUE PAPER(제 2024-0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요건을 고려한 실수요층 규모를 추정하고, 17개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 특성을 분석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요건을 갖춘 실수요층은 전체 노인의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실 수요집단의 '향후 근로희망 사유'는 생계비 마련 49.4%, 건강 유지 18.7%, 용돈 필요 17.8%, 여가 및 친교 10.3%, 경력발휘 및 사회기여 3.8%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32.2%, '정보화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72.6%로 나타났다.

이에,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45.2%), 충북(43.2%), 광주(4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사회 적응에 어려움'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북(90.5%), 광주(85.7%), 대구(85.2%)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집단이 희망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은 '공공형' 53.8%, '사회서비스형' 28.7%, '그외 민간형' 10.6%, '공동체 사업단'(구, 시장형 사업단) 6.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대상 규모는 2023년까지 전체노인 대비 9%대에 머무르다 올해 전체노인의 10.3% 수준으로 확대됐다. 내년 노인일자리사업 규모는 전체노인의 약 10.5% 규모

시도	생계비	용돈	건강유지	여가, 친교	경력발휘, 기여
서울	38.2	22.2	25.5	10.9	3.2
부산	63.7		12.0	12.9	10.1
대구	32.5	38.2		11.9	15.5
인천	35.6	9.4	42.1		10.6
광주	55.6		26.9		13.7
대전	48.5		25.5	15.5	8.2
울산	62.0		9.0	6.5	13.1
세종	91.3				4.4
경기	41.0	14.0	25.0		10.6
강원	71.5			13.0	3.8
충북	26.5	27.0	24.1	16.4	6.0
충남	46.3		5.9	30.5	12.4
전북	48.0		28.5		12.9
전남	38.8	21.0	29.9		8.9
경북	81.8				9.7
경남	48.6		17.6	24.3	9.5
제주	60.1		18.8		3.5
전국	49.4		17.8	18.7	10.3

시도별 노인일자리 수요집단의 희망 사업유형.

(109만8000명)로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서 '향후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다.

노인일 자리를 찾는 2명 중 1명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자체 노후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소득이 절실한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서비스 가격 공개

내년 1월 27일부터... 변동 가격 분기기준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일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력'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결혼식장 이용은 예비부부들에게 지출의 큰 부담이 되지만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였고, 특히 최소 보증인원은 현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복잡한 결혼준비를 위해 많은 예비부부들이 의존하는 서비스이나,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하여 '깜깜이 스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

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선택품목들이 추가금으로 부과되는 사례도 많아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선택 시 서비스별 가격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사 누리집이나 앱 또는 참가력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주로 묶음상품으로 제공되는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최종 지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2025년 1월 27일부터 공개하고,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월, 7월, 10월 기준)를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89.4% '불법영상물' 범죄 인식

발생 원인 54.8% '장난으로' 1순위 꼽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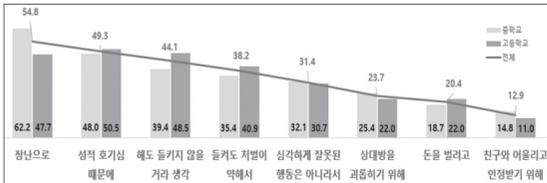
교육부가 지난 11일 '학교 디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적 우려가 컸던 '디페이크' 사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결과이며, 주요 조사 항목으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디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부문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 디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로 응답해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

지하고 있었다.

디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로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76.0%)가 제일 높았으며 이 항목에 여학생이 81.7%, 남학생이 67.7%가 응답하여 남녀 간 차이(14.0%p)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디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54.8%의 응답자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으며, 디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에는 응답자의 92.0%가 '사건을 도용해 가짜



학교 디페이크 성범죄 발생원인 인식.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디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디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학생(83.3%)보다는 여학생(95.1%)이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전체 9.8%로, 남학생(15.5%)이 여학생(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보여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2주간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디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125조4909억원 확정

사회복지 관련 107조1868억원... 7.6% 증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과 비교했을 때 8조4465억원(7.2%) 증가된 규모다. 다만, 올해 정부안 125조6565억원과 비교했을 때 1655억원 감액됐다.

이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107조1868억원이 편성

됐다. 지난해 99조5784억원과 비교했을 때 7조6084억원(7.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18조6596억원), 취약계층 지원(5조4782억원), 공적연금(49조3432억원), 아동·보육(5조2298억원), 노인(27조4413억원), 사회복지일반(1조3466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 관련 예산에는 18조3041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로는 17조4660억원 대비 8381억원

(4.8%) 증가했으며, 보건의료(4조1764억 원)와 건강보험(14조1277억 원)에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감액도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은 총 931억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5억원 감액됐다.

또 기초연금(500억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6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육신속·매입(52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7억원) 등에서 649억원이 줄어들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109만8000개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달 2일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262억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만8000개를 확대한 109만8000개가 제공된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만2000개로 확대하여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

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만1000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

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복지포(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2025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왕절개 출산 시 본인부담금 '제로'

오는 1월 1일부터... 자연분만과 같은 무료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 무료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 확대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분만건수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은 35.7%를 차지하는 약 8만1000건이었고, 제왕절개는 나머지 64.3%인 약 14만6000건에 해

당된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 무료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 확대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분만건수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은 35.7%를 차지하는 약 8만1000건이었고, 제왕절개는 나머지 64.3%인 약 14만6000건에 해

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할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이준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고 말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2024년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시상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시상식 우수 봉사자 18명 표창·관리센터 5곳 현판 증정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는 '제19회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11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우수 사회복지자

원봉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나눔과 봉사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 유공자와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공자 표창은 보건복지부장

관 표창 3명, 충청북도지사 표창 8명, 아산상(자원봉사부문) 1단 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1명,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5명으로 총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중 최다 실적 등록 기준으로 뽑힌 5개소를 선정해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을 증정했다. 특히, 협의회 대표 봉사단체인

나우리봉사단이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제36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자원봉사상을 수상하여 이날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 회장은 “올 한 해 봉사의 열정은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의 실천을 보여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내년 을사년 새해에도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이 지역을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송년행사 개최

성과 공유·감사패 전달 등

옥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황명규)은 지난 6일 '2024년 장애인 복지관 성공을 나누고 미래를 그린다'라는 주제로 장애인평생교육 이용자 경연대회 및 작품발표회와 장애인복지관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송년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만찬행사로 진행했고, 황규철 옥천군수와 추복성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내외빈 및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그동안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을 위해 애써주신 우수 후원단체 옥천정담로타리클럽(회장 유복여)과 열성 자원봉사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회장 이향숙)에 복지관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들이 한해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장애인에게 3개 단체(옥천정년연합회장상, 사랑봉사단회장상, 새마을문고 옥천군지부회장상)회장의 명의로 상장과 선물을 수여했다. 2부 행사는 장애인복지관과



옥천군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송년행사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년 인연을 맺은 자원봉사단체와 후원자, 이용자들이 함께 한 행사와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축하하는 만찬회 자리를 가졌다. 황 관장은 “통합복지관에서 분리 후, 2024년 한 해 우리 복지관과 인연을 맺고 함께 해주신 분들을 초청하여 감사의 인사와 이

용자들이 갖고 닦은 실력을 보여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봉사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가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옥천 지역 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거듭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나눔의 가치 되새기다

자원봉사 페스타 성료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김현숙)은 지난달 28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2024년 자원봉사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은세계봉사단과 ICT미디어봉사단 등 50여명의 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봉사 성과를 돌아보고 그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은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나눔의 가치



2024년 자원봉사 페스타에 참석한 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페스타는 자원봉사 활동을 돌아보는 '나눔의 시간'으로 문을 열었다. 상담실 봉사팀은 우수 활동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사회를 위

해 헌신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이어 상영된 활동 영상은 봉사자들의 열정과 땀방울이 담긴 모습을 생생히 전하며 감동을 주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선배시민 어워즈'를 통해 축제의 열기를 더하며 2025년 봉사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차년도 활동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은세계봉사단은 단순 취미·여가생활 및 자기만족에 그치는 않고, 배운 것을 활용해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대회 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취감을 얻는 동시에 주도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후배세대에 기여하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일 청주상당공원에서 '희망2025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 올려주세요”... 104억원 목표

충북모금회 희망나눔캠페인 내년 1월까지 62일간 릴레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는 지난 2일 청주상당공원에서 '희망2025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진행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는 나눔캠페인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1일부터 시작된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작년과 동일한 슬로건인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충북을 가치있게'로 희망 릴레이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의 모금목표액은 104억원으로 지난 해 나눔목표 대비 108.9%에 해당하며, 1억 400만원이 모아질 때 마다 상당

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간다. 이날 행사는 김수민 충북도정무부지사, 이상섭 충청북도의회장,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김현기 청주시의장, 이명식 대한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충북모금회 모금분과실행위위원회가 함께 참석하여 사랑의온도탑 100도 달성을 함께 기원했다. 올해는 SK하이닉스에서 2억 7300만원, 에코프로에서 1억 3000여만원, NH농협은행충북본부에서 1억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나눔에 참여했다. 이 회장은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나눔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

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눔온도가 100도에 도달하여 또 다시 희망을 퍼뜨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모금회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나눔캠페인을 전개하며,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시·군 성금 모금행사를 진행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충북모금회 홈페이지(cb.chest.or.kr)를 통해 입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북모금회 사랑의 계좌(313-01-122113)나 방송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ARS 060-700-0008(한 통에 2000원)을 통해서도 기부참여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모금회 유선(☎043-260-7291)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시니어클럽, '동네마실 빨래방' 오픈

노인 경제적 자립 지원 주민 세탁 서비스 제공

영동시니어클럽(관장 이종숙)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이 '동네마실 빨래방'을 오픈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동네마실 빨래방'은 영동시니어클럽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하나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비 1억9000만원과 군비 대응투자금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총 2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이 함께 성장하는 성공적인 노인일자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관내 속박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세탁물을 수거해 전문적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코인



영동시니어클럽은 지난 4일 '동네마실 빨래방' 개업식을 갖고 근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탁기 3대와 건조기 3대를 24시간 운영하며 개인 세탁물처리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대량 세탁의 경우 직접 수거와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해당 서비스는 평일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1인 가구, 맞벌이 가정, 긴급 세탁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동군과 영동시니어클럽은 지난 4일 개업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 관장은 “이번 동네마실 빨래방은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사회 참여와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빨래방 서비스 이용은 유선(☎043-744-6675)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충북 노인일자리 기관운영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제101회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

충북 시니어클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지원책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정책제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충북지회(지회장 김혜미)는 '충북 노인일자리 기관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01회 충북 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청주서원시니어클럽 박진홍 관장이 맡았으며, 토론은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준수 교수, 청주가경노인복지관 김현숙 관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서울지회 박주형 지회장이 참여했고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박진홍 관장은 충북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시설 확충 ▲운영체계 및 처우 개선 ▲통합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역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 촉진을 제언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논의와 제안들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충북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



청주서원시니어클럽 박진홍 관장



좌장과 주제발표자, 토론자 총 5명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2024년 기준 노인 인구가 995만4395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으로 전체 인구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북도도 노인 인구는 34만567명(충청북도 인구통계)로 지역 인구의 21.4%에 이르러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통계청, 2022년 고령자 통계)로, 2019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4년 약 2만5000개였던 사업량은 2024년 103만개로 약 41.2배 증가했다. 충북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21년 3만150명에서 2024년 3만859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법에 따라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 육성, 안전관리, 그리고 노인 주도 재화 생산·판매를 담당하는 법적 근거를 가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2개소가 운영 중이며, 충북에는 12개소가 있다. 아울러 2024년 9월 기준,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 유형 중 시니어클럽의 참여율은 37.8%로 가장 높았으며, 시장형 사업(75.7%)

과 사회서비스형 사업(59.5%)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충북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여와 지속가능한 노인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필요성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은 2004년 213억원에서 2024년 2조264억원으로 95.1배 증가하였으며, 충북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예산도 2015년 14억 4274만원에서 2024년 71억243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사업의 양적 성장과 확장을 보여주지만,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 운영 형태, 시설 및 지원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충북 시니어클럽의 평균 시설 현황을 보면 사무실 158.87㎡, 교육실 78.73㎡, 회의실 0㎡, 기타 공간(화장실, 복도 등) 243.27㎡로, 참여자 2만 749명과 수행인력 238명(평균 19.8명)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2024년 4월 말 기준 전국 시니어클럽의 평균 직원 수는 21.4명(정규직 6.4명, 노인일자리 담

당자 14.5명)인 반면, 충북은 평균 19.8명(정규직 6.9명, 노인일자리 담당자 12.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다.

이로 인해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고, 비정규직의 계약 만료와 잦은 퇴사로 인해 전문성 확보와 전략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의 환경 및 다양한 사업 유형에 대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개발과 함께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비책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충북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개선하여 충북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을 활성화해야 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충북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개선책이 도출됐다.

우선, 시설 규모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부족한 시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필수적인 공간을 최소 200평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작업장, 회의실, 직원 휴게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확보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별 운영 비용과 지역 중심의 특화 사업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고, 충북 지역 중심의 특화된 사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상임대 작업장 및 초기 투자비용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 판매,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추진 등의 방안을 통해 충북형 시니어클럽 부설센터와 같은 지역 특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관리 체계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화가 필요하며, 사업 수행에 있어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에, 민·관·산 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컨트론타워 타워 중심의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는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정규직 인력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계약직)의 처우 개선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정규직 직원이 적고 계약직의 잦은 입퇴사가 반

복되면서 전문성이 저하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별 정규직 인력을 확대하고, 정당한 급여 지급을 통해 시군별 시니어클럽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유형에 따른 지원 미비와 시장형 일자리의 초기 투자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충북 고유의 특성에 맞는 시장형 일자리 및 특화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양적 일자리 확대 및 질적 노인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역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질적인 일자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전산시스템(희망이음, e나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된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회계, 실적, 참여자 관리, 평가 및 구인·구직 관리 등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통해 충북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김현숙 관장



둘째, 시설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시니어클럽도 복지관이나 유사 기관들과 동일하게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에 맞는 교육시설과 상담,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위탁법인을 공모해야 한다.

또한, 사업체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발이 중요하다. 획일적인 일자리 유형화와 평가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창의적 일자리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 연계를 통한 역할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시니어클럽은 노인 인력 개발과 기업 연계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확대, 시설 개선, 맞춤형 사업 개발, 민간 연계 강화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서울지회 박주형 지회장



둘째,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적절한 대우·실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은 예산과 지침 부족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교육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사업 운영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시니어클럽 운영의 주요 어려움은 사업 배정량 증가를 위한 지원 부족과, 비정규직 직원만 늘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안일한 접근이다.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은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지만 예산과 행정성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복지관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본 구조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시니어클럽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종사자의 처우개선, 교육 강화, 안전체계 마련과 함께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준수 교수



법인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둘째, 사회복지행정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신규 사업 개발, 마케팅, 홍보 등 사회복지행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 외부 지원이나 전문적 기능을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 경영 컨설팅, 사업개발 컨설팅 등 타 분야의 전문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는 재원 마련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치 재정립이 중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건강 개선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으나, 이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단순한 소득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전문 인력 강화, 행정 기능 보완, 사업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한 고용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규직 인력 확충이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 불균형은 사업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운영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정규직 인력을 늘려야 한다.

복지광장



박 상 준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새로운 시니어&힐링연구소장

얼마전 서울소재 C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이 시선을 끌었다. '실버타운은 노인 지옥이었다'는 기사다. 우리나라에선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 시니어타운 개발 시장이 뜨거울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데 '노인지옥'이라니 납득이 안갔다. 물론 관련기사에 나온 곳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본 언론에 소개됐다는 내용은 이렇다. 도쿄 토박이로 부인과 별거 중인 77세 남성은 3년 전 치매환자 카모가와시에 새로 생긴 럭셔리 시니어타운

에 갔다가 한눈에 반해 홀로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오션뷰 수영장에 노천욕탕, 휘트니스 클럽, 가라오케, 극장, 마사지룸, 도서관, 마작룸, 당구장이다 언제든 의료진이 달려올 수 있는 의료시스템도 갖췄으니 활기찬 일상에 심심할 일도 건강 걱정도 덜었을 것이다.

그는 워낙 주변 자연환경이 좋은 시니어타운에서 틈이 날때마다 바다와 산 풍경을 즐기며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듯한 기분이었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쇠한 노인들과 과거 자랑만 잔뜩 늘어놓는 '라떼족' 외에는 자신과 소통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선택은 거액의 보증금만 손해 본 채 고향 도로로의 귀환이었다.

이처럼 도시라고 모두에게 답이 될 순 없고 자녀가 있는 도시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다. 90대 초반인 지인의 부친은 고향인 충북 음성군의 산골마을에서 홀로 산다. 걱정이 된 장남이 도시로 모셔가려고 해도 완강히 거절한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마을 노인정에는 친구와 지인들이 아직도 많이 때문이다. 점심과 저녁은 주로 노인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눈다. 뒷밭도 가꾸며

노후 행복의 관건

주말마다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고구마, 옥수수, 무우, 배추, 오이 등을 한꾸러미씩 돌려보낸다.

"나이가 들면 새소리가 들리는 곳보다 자동차 소음이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적적하고 생활 인프라가 없는 시골보다는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많은 변화한 도시가 살기에 더 낫다는 말이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C일보 기사는 핵심을 벗어났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이 설파한 '군중속의 고독'은 도시인들의 고립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도 이웃과 단절되고 배우자나 친구가 먼저 떠나 외로움을 겪는다면 내은사인이 번쩍번쩍 빛나는 도심 한가운데 살아도 고독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게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다. 함께 '소통'하고 취미를 공유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부다.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호흡이 잘 맞는 배우자나 말이 통하는 지인이 있다면 환경이 열악한 섬이나 외국에 가서도 재밌게 살 수 있다.

내가 아는 80대 후반의 어르신은 젊은 시절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온갖 고생 끝에 로스앤젤레스에 호텔을 두 곳이나 인수할 만큼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일찍 부인과 사별한 그는 호텔

을 아들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지금은 귀국해 역시 서울에 살다가 홀로 천안의 시골에 자리 잡은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미국의 고급 저택에서 얼마든지 호사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 시내에서도 40분 이상 들어가는 강촌의 농가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은 고교시절부터 70여년간 인연을 맺어온 친구 때문이다. 두 분은 교대로 식사와 청소 당번을 자처하고 틈만 나면 핫플로 소문난 카페 투어를 하거나 전국의 축제장을 드라이브 삼아 다니며 여생을 즐기고 있다. 그 연세에도 가끔은 비슷한 처지의 여자친구와 만나 공연장도 찾고 영화관람도 한다.

새소리가 들리는 시골의 노후가 누구에게나 외롭고 적적한 곳이 아니듯 시니어타운은 '노인지옥'이 아니다. 모든 것을 갖춘 시니어타운에서 부인과 백년해로 하거나 좋은 친구 또는 이웃과 소통한다면 '천국'이다. 경제적으로 부담만 안된다면 누구나 들어가서 푹있게 살고 싶은 것이다.

사는 곳이 도시나 시골 또는 시니어타운인가 집인가가 문제가 아니다. 나이가 들면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곁에 누가 있느냐도 노후 행복의 관건이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만 '시간보다 소중한 오직 하나는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이다' 작가 리오 크리스토퍼의 명언이다.

건강칼럼

뼈 건강의 침묵하는 적, 골다공증



김 윤 역

청주의료원 가정의학과장

건강 검진이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골다공증 환자를 자주 만나게 된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질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어,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이를 곧바로 골다공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골다공증은 근육이나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뼈의 골량이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지고 부서져서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약해진 뼈는 일상적인 움직임이나 부드러운 힘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침을 하거나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골다공증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진행되어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주로 손목, 척추, 대퇴골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척추 골절은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키 감소와 혼동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척추 사이의 연골 조직이 점차 얇아져 자연스럽게 키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과 함께 키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야 한다.

이때 초기에 진단을 받지 않으면 척추의 변형이나 허리가 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미끄러져서 손으로 바닥을 짚거나 엉덩방아를 찧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손목 골절이나 대퇴골 골절 같은 심각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에게 이러한 골절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골절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면 합병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이는 결국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전 검진을 통해 골밀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골다공증은 흔히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이것은 더 이상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골다공증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흡연과 음주는 골수의 기능을 억제하고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연과 금주가 필수적이다.

또한, 폐경기 전후의 50대 여성에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시기에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의 밀도가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골다공증의 조기 진단과 함께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유제품인 우유나 치즈, 칼슘이 풍부한 견과류, 멸치, 물미역 등은 대표적인 고칼슘 식품이다.

이 외에도,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타민 D는 주로 표고버섯, 달걀노른자,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으며, 햇빛을 쬐는 것도 비타민 D의 생성에 큰 도움이 된다.

현대인들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 비타민 D 결핍을 겪기 쉽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햇빛을 쬐거나 비타민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운동은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뼈와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운동은 뼈의 밀도를 높이고 강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하루 1~2시간 정도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운동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정신 건강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준다.

골다공증은 조기 예방과 관리가 핵심인 질환이다. 건강검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골밀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 뼈 건강을 관리한다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 골다공증은 흔히 뼈 건강의 침묵하는 적으로 불리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제부터라도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뼈 건강을 지키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손 태 훈

충북봉사사회복지사협회 주임

충북봉사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들의 전문성이 과연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겼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운 말 중 하나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라는 문장이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에 큰 의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장은 내게 다른 질문을 던졌다. '과연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위해 일하는 전문가이다. 이들은

자격을 취득, 윤리강령 준수, 전문 지식 습득, 그리고 실무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낮은 처우와 사회적 인식 부족, 그리고 성장 기회의 제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이는 단순히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여건을 저해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사회복지사의 체력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로 인해 자기 계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간과 역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중의 이해 부족도 문제를 심화시킨다. 사회복지사는 상담, 사례 관리, 지역사회 개발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역할을 단순한 '선이나 봉사'로만 인식한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가리는 동시에 직업적 인정과 처우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낮은 처우,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대중의 인식 부족은 서로 얽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회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인가?

복지사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사회복지사가 진정한 전문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처우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임금 구조는 직업적 열정을 약화시키고 전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업무 강도와 책임에 합당한 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본급 인상을 비롯해 성과급과 직책수당 등 다양한 보상이 포함된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안정된 근무 환경 조성도 필수적이다.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심리적 안전망 구축 역시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감정 노동과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 회복 프로그램, 휴식 지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대중은 사회복지사를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기술을 갖춘 전문가라는 본질을 희석시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조명하는 공익 캠페인과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성과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대중 매체와 협력을 통한 홍보 콘텐츠 개발, 그리고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공 광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포함시키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가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학문적·실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위 과정과 연구 활동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직무 교육의 무화해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변화하는 사회 문제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가 앙드레 지드는 "모든 사회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에 의해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당연히 인정받고, 그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복지 사회의 기준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단순히 한 직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한 핵심 자산이며, 이를 강화하고 존중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딸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외에도 혼인신고를 한 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상 권리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발생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들과 사이에서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서로 결혼을 전제로 하여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할 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부부로서 공동생활

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인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는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있고,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후원 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사)오픈월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 사업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거취약계층(단지화, 옥탑, 쪽방, 달동네, 연탄사용가구 등) 가구 중 해당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 ※ 주택이 본인 소유이거나, 임차 시 임대인의 사용동의 필요
- 지원내용: 도매 3가구, 해충방제 3가구 총 6가구(중복지원 가능)
- 사업 기간 2024.12 ~ 2025.06
- 접수방법: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추천 기관 공문 첨부)
- 참고: www.openworldkr.org

[바보의 나눔, 2025년 cpbc 라디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사연 신청 안내]

- 방송내용: 도움이 필요한 주위 어려운 이웃(개인, 단체)의 사연 소개
- 방송일시: 매주 토, 일요일 12:00~13:00(1개 사연을 2회 방송)
- 신청방법: 사연대상 추천 접수 → 사례 선정 여부 안내 → 인터뷰(방송 녹음) 진행(사연자 및 추천기관의 담당자) → 방송 및 모금 진행(방송일 포함 1주일간 ARS 및 무통장 모금) → 모금액 집계 및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 * 가명 사용되나, 라디오 방송으로 대상자의 목소리가 노출되므로 사연자 동의 확인 필수
- * 인터뷰 진행 시, 추천기관의 담당자 동행 필요
- 제출기한: 상시 접수(매주 1개 사연 방송)
- 사물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추천 및 신청 가능하며, 사연자의 직접 신청 불가
- 참고: babo.or.kr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2024년 우리은행 취약계층 결혼식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대상자, 사실혼 관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웨딩홀 대관 제공(우리은행 본점), 출장 뷔페 제공(300만원 내), 웨딩차 지원 등 ※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고
- 지원규모: 하반기 취약계층 최대 9개 커플
- 지원일정: 지원 대상자 발표 후 선정 기관에서 개별 안내

-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기관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 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개인 신청 불가)
- 참고: www.s-win.or.kr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저소득·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생계·의료비 지원사업 'With You']

- 지원대상: 만18세~24세 청년(저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혜택: 월 45000원 후원금 지급, 휴대폰 보험 지원(무상), 선정 시 1년간 혜택 유지
- 신청방법: 가입문의(070-8860-0647)→요금제 선택→요금제 가입→가입결과 제출→후원금 지급→가입유지(1년)
- 문의: 070-8820-0647

[한국아동복지협회,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정 기탁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지금은 헬스 올리GO! 신청안내]

- 사업대상: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만 29세 이하)
- *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 사업내용: 의료비지원(1인 500만원 이내), 건강검진지원(1인 40만원)
- 사업기간: ~2025년 3월까지
- 접수방법: 사회복지기관 또는 병원(의료사 회복지사)를 통해 이메일 신청(개인신청 불가)
- 접수기간: 상시 접수
- 참고: http://www.adongbokji.or.kr/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헬렌켈러홀' 입소자 모집]

- 모집대상 및 입소 조건: 동반인과 입소가 가능한 전국에 거주하는 시정각장애인 당사자(시정각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
- 모집기간: 상시
- 시설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48(휘경동 주공아파트 1차)
- 이용료: 생활비 실비 부담
- 입소기간: 14일
- 입소 우선순위: 1순위-지방 거주 시정각장애인, 2순위-지방 거주 시정각장애 아동들 둔 부모, 3순위-수도권 거주 시정각장애인
- 참고: www.miral.org

[밀알복지재단, MBC 희망노트 장애위기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항목: 의료비, 약제비, 생계비, 거주지 이전비 등
- 신청대상: 아동·청소년 포함 2인 이상의 가정 중, 1인 이상이 장애를 갖고 있으며 수술/치료가 필요한 가정
- 지원금액: 17정당 1500만원(방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예정)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해 이메일로 발송
- 신청기한: 상시모집
- 참고: miral.org

[밀알복지재단, SBS와 함께하는 202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국내위기가정 지원사업]

-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포함 2인 이상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가정
- 지원분야: 의료비, 재활치료비, 약제비, 생계비, 거주지 이전비 등
- 지원금액: 1가정 당 1500만원(방영일로부터 1개월 내 지원금 지급 예정)
- 참고: miral.org

[밀알복지재단, 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최대 500만원), 재활치료 및 의료 소모품 지원(최대 240만원)
- 지원대상: 19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제출
- 참고: www.miral.org

[KT&G복지재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 상사편의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 아동(만 18세 이하) /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내 아동
- 지원내용: 의료비 500만원 지원(치료비, 수술비, 재활, 보장구 구입 등 (간병비 제외))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
- 지원절차: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사회사업부서 등에서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개인 신청 불가)
- 캄거우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2인 이상 가구의 가장 또는 보호자 (만19세 이상) /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내 성인
- 지원내용: 의료비 1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
- 참고: www.ktngwelfare.org

[밀알복지재단, 심장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모집안내]

- 지원대상: 심장질환 혹은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받은 만 23세 이하 아동·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가정-2024년 중위소득 기준)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 지원내용: 1인당 지원금액 450만원 내 의료비, 의료제반비, 생계비 지원
- 신청기간: ~2025.9.30.(화)까지 ※ 후원금 조기소진 시 신청 마감될 수 있음

자원 봉사자 모집

-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234-0840
- ▶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영동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743-0095
- ▶ **초등학생 놀이 및 학습지도**
관리센터: 청주시남이다함께돌봄센터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291-4000

- ▶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업무보조**
관리센터: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871-0712
- ▶ **학습·숙제지도 및 말벗**
관리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855-1090
- ▶ **산책 동행**
관리센터: 괴산군주간보호센터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834-3412

▶ 초등, 중등 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교실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1 ~ 1.31
전화번호: 043-237-1487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단 '재능기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소속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단은 11월 한 달간 청주시가족센터와 도내 노인시설에 방문하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코바를 뜨개질품 제작과 서청주 새마을금고요양원에 방문하여 어르신 생신잔치를 위한 예술공연도 선보였다.

활동가 단원은 "코바를 파우

치, 외출용 한타래 가방, 겨울 목도리 등 다양한 물품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단은 이 외에도 개인의 재능을 분야별로 나누어 풍선아트, 풍·번역, 페이스페인팅 등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됐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만/평

복극성

이창신 www.bokmani.com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 원

2025.1.1.~2025.12.31. 적용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휴가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통근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기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단순노무)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학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추후임금 제외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최저임금 할 일입니다?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96,27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휴가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가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8시간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